



# 民族의 座標인 巨星

## 醫學博士 李 光 秀

☆☆☆☆☆☆☆☆☆☆☆☆☆☆☆☆☆☆☆☆

醫大 藥理學室로 李光秀教授를 찾아간 記者는 한마디로 “멋있는 紳士”라는 印象을 받았다. 西歐人的인 큰 體格에 線이 굵고 뚜렷한 윤곽의 얼굴은 典型的인 好男 스타일이다.

스키 타는 것이 趣味라는 李教授의 趣向에서도 그의 멋있는 人品이 能히 짐작되리라.

日帝 [大學時節부터 스키-를 즐겼다는 李教授는 지금은 38 以北이 된 삼방과 알프스山을 比較하여 이야기한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몇 초와 몇 時間의 差異입니다”

雄壯한 世界의 大自然 속에서 그는 스키-를 즐겼듯이 또한 醫學研究에서도 世界最大最新規模의 施設과 環境 속에서 해왔기에 그의 識見은 깊으면서도 限없이 넓기만 했다.

專攻分野인 心臟病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科學에 깃드려 哲學的 이야기를 한다.

“Heart는 人間의 代名詞입니다. 그런데 그 心臟을 앞으로 10年以內에 쉽게 人工核心臟으로 바꿀수 있게 됩니다.

果然 神의 創造가 아닌 人工의 心臟을 단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生각할수 있을까?

알듯 모를듯한 이야기는 繼續된다. “오늘날 흔히 쓰는 避妊藥을 나는 단

순하게 藥이라고만 生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避妊藥은 人間社會風潮의 方向을 바꾸어놓을 重大한 契機를 만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디다”

道德的이고 宗教的인 이야기이면서 유모려스한 그의 話術에 記者는 完全히 매혹當하고 말았다.

果然 藥理學會(會長 김중석)에서 科學賞受賞者로 推薦하리만큼 李光秀教授는 世界的인 學者임에 首肯이 간다.

運이 좋아 일즉 大學教授生活을 하게 됐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李教授는 알고 보디 首席으로 京城帝大豫科를 突破한 서울產 秀才다.

6.25 事變後美國으로 건너가 美國에서 醫學博士學位를 받았으며 現在 New York 州立大學教授로 있으며 昨年 가을 韓國에 돌아와 母校에서 藥理學講義를 말고 있다.

李博士는 心臟病의 原因을 究明하는데 正과 逆의 兩面에서 파고 든다고 한다. 卽心臟病의 特效藥을 研究해 내기도 하지만 特效生藥의 成分으로 心臟病의 原因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現代醫學開拓은 8割을 美國이 擔當하다싶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3,40年間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強調하면서 李博士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韓國醫學徒가 世界的으로 優秀하

다는 것을 나는 느꼈읍니다. 單只 이 優秀한 素質과 能力을 어떻게 키워 주느냐가 問題입니다.

敗戰日本이나 獨逸이 오늘날 戰勝國인 英佛보다 더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들은 廢墟에서 불과 2.30年間에 오늘의 富強을 가져 왔읍니다.

現代는 모든 면에서 Tempo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發展하는 軌道에만 올라섰다 하면 또 그 方向만 잘 잡아주면 얼마든지 急速度로 發展할 수 있습니다.

問題는 우리가 處해 있는 位置와 그 方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또 우리의 位置와 現在 걷고 있는 方向을 正確하게 感知하고 있는 사람이 몇 이냐가 問題입니다.”

次元이 높은 政治的인 이야기에 記者는 다시 한번 感服했다.

研究室에만 묻어 두기엔 너무나도 가까운 人材라고 痛感하면서 무궁한 그의 이야기를 더듣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藥理室을 나서자,

“現代文學은 佛蘭西 ‘루네쌍스’ 때 씌이 돌았읍니다. 그 當時 現代文學의 始發이 될 것이라는 事實을 豫知한 사람은 果然 몇名이나 됐겠읍니까?”

暗示的인 李박사의 이야기가 자꾸 자꾸 記者의 鍵에서 맴도는 까닭은 무엇 일까?